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 늘린다

농식품부·전남도·나주시·14개 공공기관 업무협약
안전한 먹거리 보장·중소농 소득 증대·일자리 창출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인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14개 공공기관, 전남도, 나주시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생산·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나주한전KDN㈜다목적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과 박성철 한전KDN㈜ 사장·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농식품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부식 서비스, 명절 선물 등에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하며, 농식품부는 로컬푸드 공급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공기관과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성화한다.

소비자에게는 누가 언제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농산물'이 공급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지 못했던 지역의 중소고령농, 여성농은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유통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나주시역 중소농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14개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개 기관이 로컬푸드를 공급받고 있으며, 4개 기관은 나주시와 협의 중이다.

중소농을 조직화해 로컬푸드를 공급할 경우 식재료 공급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전남도와 나주시가 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함에 따라 수요자의 추가 부담 없이 농가에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부대, 복지시설, 국공립병원 등 공공급식 전반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선순

환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계획과를 지난 10월 신설했으며,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에서 로컬푸드를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중소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선도모형을 다른 혁신도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도시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4일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열린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로컬푸드 공급확대 업무협약식'에서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박성철 한전KDN㈜ 사장,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81명 714억 체납

전남 체납자 1325명 795억

광주지역 법인 중 라인건설이 취득세 17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4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350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 신규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으로 체납액은 194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했으나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신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281명에 714억8400만원에 이른다.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명(2억4000만원)과 개인 4명(5000만원) 등 모두 5명에 2억9000만원이다.

신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정평룡(43)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라인건설이 취득세 17억9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금액이 컸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

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또 이날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325명이고, 체납 규모는 795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신규 공개자 224명(97억원), 기존 공개자 1101명(698억원)이며, 이중 개인은 904명(382억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 원이다. 개인으로는 목포에 사는 이모씨가 16억원으로 최고였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67명(14.4%)이 늘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4일 "29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 이용섭 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채용비리 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시감사위(062-613-2220)에서 가능하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도 수도권 4개 기업과 269억 투자협약

138명 일자리 창출

전남도는 14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수도권 기업 4곳과 26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일자리 창출 규모는 138명이다.

이날 투자를 협약한 에스디엔㈜은 강진산단에 108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알루미늄 선박 제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어업회사법인 ㈜스마트FPC는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65억원을 투자해 김·매생이 등 가공공장을 짓는다.

구주기술㈜과 동우전기㈜는 나주 혁신산단에 48억원씩을 투자해 절연물 등 전력기자재와 변압기·차단기 등 제조공장을 각각 건립한다.

전남도는 앞서 수도권 기업 대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도 열었다. 투자유치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

지사와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수도권 기업인 7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전남에 투자한 기업의 성공스토리가 눈길을 끌었다. IOT 솔루션 전문업체인 ㈜누리텔레콤이다. 한국전력 납품업체인 이 회사는 나주 혁신산단에 입주한 2015년 매출이 5억원이었지만 이전 3년만인 올해 현재 14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 5월에는 지능형검침인 프라(AMI)업체 최초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돼 산업부로부터 연간 1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또 분야별이 낮은 지역산단 6개 시군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개발공사 등과 함께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재난안전본부도 지진 무방비...전남 24곳 중 11곳

나광국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지역 공공건물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대책본부 24곳 중 무안·목포 등 11곳에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14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건물·관공서·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이젠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배포한 도내 공공건물 내진설계를 자료에 따르면 도내 학교 건물 내

진 설계율은 전국 평균 28.1%에 미달하는 21.9%로, 제주·전북·경북에 이어 4번째였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762곳 중 내진설계를 갖춘 곳은 296곳으로 16.8%에 불과했다.

특히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도내 24곳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무안·목포 등 11곳도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광국 의원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남도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까지 지속적인 내진 보강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신생기업 10개 중 2곳 5년내 문 닫아

김점기 광주시의원 분석

광주지역 신생기업 10개 중 2개는 5년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의회 김점기(민주 남구2) 의원이 분석한 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신생기업의 5년 내 생존율은 23.9%에 그쳤다.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대구 28.4%, 부산 27.5%, 울산 26.0%, 인천 25.5%, 대전 24.4%다. 창업률은 16.36%에 그쳤다.

창업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내년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차질이 예상된다.

다.

시는 2018~2021년 국비 280억원, 시비 170억원 등 450억원을 들여 창업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있는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내년도 국비 60억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광주는 창업기업, 지원기관, 지원시설을 한곳에 집적화할 시설이 없어 창업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며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지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예상·50KW급 매월 150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 본 투시는 고적역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최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빛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